민주노동당
1천명 평생당원, 1만명 집단입당
약정서

민주노동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민주노동당을 통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완성하겠다는 민주노총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기일수록 더 크게 단결하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무분별한 역주행과 과속질주를 막아낼 검증된 정당은 진보대표정당 민주노동당뿐입니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역경을 딛고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평생당원, 세액공제, 집단입당, 정치기금마련', 4대 당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헌신적 당사랑운동’ 차원에서 1인당 평생당비 1,000,000원씩 납부자를 1천명 조직할 것을 민주노동당 앞에 약정합니다. 또한 민주노동당 1만 명의 집단가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민주노총은 정치방침 사수와 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겠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석 행 (인)